

광주체고 양궁·복싱 '전국 최강' 실력 입증



광주체고가 최근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에서 여고부 전종목을 석권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산, 홍지희, 박연경, 박세은.

장관기시도대학양궁 여고부 전종목 석권...안산 4관왕 대통령배시도복싱 2체급 금메달 획득 고등부 종합 1위

광주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의 전국대회 활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세종목인 양궁은 물론 최근 복싱에서도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광주 엘리트 체육 실력을 전국에 과시했다.

광주체고 양궁부는 최근 경북 예전에서 열린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학 양궁대회에서 여고부 전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70m와 60m에서 박연경(3년)이, 50m와 30m는 안산(2년)이 금빛 화살을 명중시켰고, 개인종합에서 안산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친 결과 단체전 금메달도 광주체고의 몫이 됐다.

안산은 30m에서 354점으로 1위에 올랐고, 50m에서도 344점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70m에서 2위(337점), 60m에서 3위(342점)를 한 안산은 총점 1,377점으로 개인종합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박연경은 70m(341점)와 60m(350점)에서 우승했고 30m 3위(352점), 50m 7위(331점)로 총점 1,374점을 획득하며 개인종합 2위를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안산과 박연경의 활약 뿐 아니라 박세은(2년)이 총점 1,344점(6위), 홍지희(3년)가 1,299점(46점)을 기록하면서 단체전에서도 총점

4,095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광주체고 양궁 여고부는 최근 각종 전국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고 있어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광주체고 남고부도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이원주(1,329점·6위), 김성현(1,313점·16위), 김정훈(1,308점·18위), 김건우(1,279점·33위)가 출전, 총점 3,950점으로 서울체고(3,999점), 강원체고(3,954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송철석 양궁감독은 "체력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 후 개인차에 맞게 집중훈련을 하면서 경기력 향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10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적인 훈련을 마무리하고 전지훈련을 통해 안정도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복싱 실력도 전국 최고였다. 최근 구미에서 열린 제48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광주체고는 잇따라 메달을 수확했다.

박건(3년)과 서순종(3년)이 각각 69kg과 91kg급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46kg급 성현태(1년)가 은메달을, 64kg급 홍희영(3년)이 동메달을 따며 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체고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고등부 종합 1위에 올랐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브라질 공격수 두아르테 영입

'양발 사용' 프리킥 전문...두뇌플레이·개인기 장점

광주FC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를 영입, 아시아계임으로 인해 한달여간 자리를 비우는 나상호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광주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두아르테(25·Robson Carlos Duarte)를 임대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174cm 68kg의 날렵한 체구를 갖춘 두아르테는 뛰어난 두뇌 플레이와 드리블, 스피드가 장점이다. 풋살 선수 출신으로 개인기가 좋고, 양발을 모두 사용해 좌우 측면 공격 뿐 아니라 처진 공격수와 스트라이커까지 소화 가능하다. 득점력과 연계능력 등도 수준급이다.

2012년 브라질 아메리카SP에서 데뷔한 두아르테는 2016년 산투안드레에서 주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초에는 아나폴리 소속으로 리그 최다득점 TOP3(15경기 6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광주 유니폼을 입은 펠리페와 마찬가지로 두아르테 역시 이번에 이적한 광주가 생애 첫 해외 팀이다. 두아르테의 광주행에는 한국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다.

두아르테는 포항스틸러스의 미드필더 김현승과 2014년 아틀레티쿠 소로카



바(상파울루주 2부)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2016년에는 경남의 특급 골잡이인 말경(이투아누_브라질 세리에D)과 골격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제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펠리페와는 최근까지 선의의 경쟁(세리에B/고이아스-빌라노바)을 펼쳐왔다.

두아르테는 "한국 친구들과부터 K리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빠르고 거칠지만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며 "광주는 나의 첫 해외 진출 팀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만큼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싶다. 한국축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선수 뿐 아니라 브라질 출신 공격수가 둘이나 보강됐다"며 "광주는 리그 득점 1위인 나상호 없이 한달 이상 버텨야 한다. 두아르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여수정보과학고 김다혜 금1·은1

하계전국 중·고유도연맹전...순천 신흥중 김보경 3위

여수정보과학고 김다혜(3년)가 2018하계전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각각 획득했다.

99체전 전남대표인 김다혜는 1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고등부 무제한급 결승전에서 구은정(충남체고)을 꺾고 올해 전국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업어치기가 주특기인

김다혜는 +78kg급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다혜는 +78kg급에서는 순천만대회 1위, 이번 대회 2위, YMCA대회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순천 신흥중 김보경(2년)은 여중부 -57kg급에서 3위를 기록했다.

터뜨리며 극적인 재역전극을 연출했다. 윤영준은 신장(170cm)은 그리 크지 않지만, 골결정력과 빠른 스피드, 돌파력, 강력한 슈팅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대회 9득점으로 득점 선두다.

장흥중은 2일 오후 5시 2018 전국중등축구리그 전북권역 3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완주중학교와 대회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장흥중은 지난 2월 제54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8강, 2018 전국중등축구리그 전남·광주권역 4위를 달리고 있다. /최진화 기자

장흥중 충무공 이순신기 축구 결승 진출

장흥중학교 축구팀이 2018 충무공 이순신기 전국중등축구대회에서 결승에 안착했다.

장흥중은 1일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경기용인 FC U15백암과의 준결승전에서 윤영준(3년)이 4골을 몰아친 '득점 원맨쇼'를 펼친데 힘입어 4-3으로 승리했다.

16강전서 이리동중예 2-1 승리를 거둔 장흥중은 8강전서 경기고양FC U15 팀과 0-0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하며 4강에 안착했다.

준결승에서는 후반 한때 1-3까지 끌려갔으나 후반 추가시간 2분에 동점골과 후반 추가시간 4분에 역전골을 각각



격렬한 몸싸움 한국과 잉글랜드 여자하키팀이 1일 영국 런던의 퀸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리 벨리 하키펠드에서 열린 월드컵 8강 진출 결정전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0-2로 패했다. /EPA-연합뉴스

KBO 역대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 나오나

7월까지 1,179개...로맥·로하스+해외 복귀파 삼총사 '펍펍'

벌써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KBO리그에서 홈런이 설 새 없이 터진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전국 5개 구장에서 홈런 10방이 나왔다.

전체 정규리그 일정의 70.3%인 506경기를 치른 이날까지 10개 구단이 올해 터뜨린 홈런은 1,179개다.

이 추세라면 계산상 올 시즌을 마칠 무렵엔 홈런 수가 1,678개로 불어난다.

올해와 비슷한 507경기를 치른 지난해 8월 5일까지 터진 홈런은 1,065개였다. 올해엔 100개 이상이 증가했다.

출범 36년째인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이 생산된 해는 2017년이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10구단 체제가 확립된 지 3년째인 지난해 무려 1,547방이 나왔다.

올해엔 2년 연속 홈런 신기록을 쓸 테세다.

작년엔 507경기를 치르는 기간 5개

구단이 세 자릿수 홈런을 쳤다면, 올해엔 7개 구단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달리 한화 이글스가 아직 100홈런을 못 쳤지만, LG 트윈스(108개), 넥센 히어로즈(115개), kt wiz(142개) 세 팀이 홈런을 양산했다. 특히 kt 팀 홈런은 전년도 보다 2.12배나 급증했다.

풀타임 2년 차 외국인 타자들의 활발한 타격과 돌아온 해외파 선수들 덕분에 홈런이 크게 늘었다.

SK 와이번스의 주포로 자리매김한 제이미 로맥은 홈런 34개를 터뜨려 이 부문 1위를 질주한다. 그는 2005년 래리 서튼(당시 현대 유니콘스·35개) 이래 13년 만에 외국인 타자 단독 홈런왕에 도전한다.

kt의 벨 로하스 주니어도 28개를 쏘아 올려 홈런 페이스 4위를 달린다.

둘은 지난해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 땅을 밟아 각각 31개(로맥), 18개(로하스)의 홈런을 남겼다.

KBO리그 투수들의 적응력을 높인 올해엔 이미 작년 홈런 수를 능가했다.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온 박병호(넥센), 김현수(LG), 황재균(kt)도 대포생산에 힘을 보탤다.

박병호는 왼쪽 종아리 근육 부상이라는 악재를 털어내고 홈런 26개를 쏘 홈런킹 경쟁에 가세했다. 2012~2015년 KBO리그 홈런왕을 4연패 한 주인공답게 몰아치기에 능하다.

지난 3~5월 홈런 9방에 그친 박병호는 6~7월에만 17개를 보태 홈런왕 잠재 후보로 떠올랐다.

김현수(18개)와 황재균(15개)도 홈런 20개 고지를 눈앞에 뒀다.

투수의 평균자책점이 같은 기간 지난해(4.96)와 올해(4.98) 큰 차이 없다고 볼 때 홈런을 크게 늘린 5명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합뉴스

전남체고 박수열·나홍길 2관왕 대통령기시도대학레슬링 금

전남체고 나홍길(3년)과 박수열(2년)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레슬링대회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 2관왕에 올랐다.

나홍길은 그레코로만형 51kg급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체고대학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특히 나홍길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51kg급 동메달을 추가하며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모두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홍길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도 2개 종별 모두 금메달을 노린다. 박수열은 자유형 5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우승자인 박수열도 이번 대회 금메달로 시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99체전 전남대표인 김성복(한국체대 4년)은 남대부 자유형 79kg급에서, 강승희(한국체대 3년)는 자유형 86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또 이지연(상무)은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67kg급 은, 이종훈(전남레슬링협회)은 자유형 59kg급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진화 기자